

지역의사제 571명 수시 선발... 97.5%가 '수능최저' 요구

수시 571명 중 미적용은 14명뿐
내신·수능 동시 관리 구조 지적
종로학원 "N수생 유입 가능성 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가 수시 중심 선발 구조에도 사실상 '수능형 전형'이 될 전망이다. 전국 31개 대학 지역의사제 수시 선발 인원의 97.5%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신과 수능을 모두 갖춘 반수생·N수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종로학원이 2028학년도 각 대학 의과대학 지역의사제 모집인원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전국 31개 대학 지역의사제 전체 선발 인원 610명 가운데 571명(93.6%)이 수시에서 선발된다. 정시는 39명(6.4%)에 그친다. 경인·강원·대구경북·부울경 소재 대학들은 지역의사제를 전원 수시로 선발한다.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선발 31개대 수시 수능 최저적용 상황〉 /종로학원

지역	대학수	수시전체 선발인원	최저 적용		최저 미적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경인	경인 계	4	27	23	85.2%	4	14.8%
지방	강원	4	79	79	100%	0	0.0%
	대구경북	5	90	90	100%	0	0.0%
	부울경	6	121	121	100%	0	0.0%
	호남권	4	98	98	100%	0	0.0%
	충청권	7	132	124	93.9%	8	6.1%
	제주	1	24	22	91.7%	2	8.3%
	지방 계	27	544	534	98.2%	10	1.8%
계	31	571	557	97.5%	14	2.5%	

이 가운데 수시 선발 인원 571명 중 557명(97.5%)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14명(2.5%)에 그쳤다. 수능최저 미적용 전형은 성균관대 성균

인재(지역인재) 4명, 건양대 지역의사전형 8명, 제주대 지역의사(종합) 2명이다. 제주대도 교과전형 22명에는 수능최저를 적용해 사실상 수능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성균관대와 건양대뿐이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 4개 대학, 대구경북권 5개 대학, 부산·울산·경남권 6개 대학, 호남권 4개 대학은 지역의사제 수시 모집 전원이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충청권 7개 대학은 수시 선발 132명 중 124명(93.9%), 제주권은 24명 중 22명(91.7%), 경인권은 27명 중 23명(85.2%)이 수능최저 적용 대상이다.

수능최저 기준도 높은 수준이다. 가천대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중 3개 영역 1등급을 요구하고, 부산대는 3개 영역 등급합 4를 적용한다. 인하대·한림대·경북대·울산대·순천향대는 3개 영역 등급합 5 수준의 기준을 두고 있으며, 울산대는 한국사 4등급 조건도 함께 반영한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취지로 도입되는 전형이지만, 수시 대 부분에 높은 수능최저가 붙으면서 현역 학생에게도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온다.

지역학생 선발 규모 확대도 지방 의대 지원 경쟁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인재·지역의사제 등 지역학생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1698명, 2028학년도 18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권 고교 간 의대 합격자 배출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입시에서는 내신과 수능 부담이 동시에 큰 구조로 설계됐다"며 "수시 선발 비중이 절대적인 데다 수능최저 적용 비율도 높아 학교 내신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반수생 등 N수생이 상당수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h@metrosoul.co.kr

서울교육청, 교사 마음건강 챙긴다

유·초등, 매일 'Cheer-up Day' 운영
중등, 직위별 강의·체험형 등 프로그램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교육과정 선택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유·초·중등 교원 5000명을 대상으로 '2026 회복력 지원 직무연수'를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연수원은 올해 교육 현장 설문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 유형을 늘리고 연수 인원도 확대했다.

유·초등 교원 대상 연수는 명사 특강, 시리즈 강의, 체험·실습, 워크숍, 속삭형 연수 등으로 운영된다. 매일 마지막 수업은 유·초등 교원을 위한 'Cheer-up Day'로 정해 소통과 공감 중심의 강의와 체험



서울시교육청
함 활동을 진행한다.
중등 교원 대상 연수는 교사, 교감, 교장 등 직위별로 나눠 강의형, 체험형, 속

박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중등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마련해 학교가 연수원 인력풀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선택·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원은 강사 섭외, 일정 조정,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는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교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오는 20일에는 서울시교육연수원 무면관에서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특임교수가 '교원의 자기돌봄과 성장을 위한 시간'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박숙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에 협력적·회복적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땡겨요서 지역화폐 쓰면 최대 40% 할인"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혜택 연계
포장·브랜드 할인쿠폰 중복 가능

서울시가 18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맞춰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지역화폐로 배달주문 시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시민들의 외식·배달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서울배달+땡겨요 할인 혜택과 연계해 운영한다.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이 적용되고,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중개수수료 2% 수준의 공공배달앱으로,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발행한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기존 자치구별 배달전용상품권과 달리 서울 전역의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5월 31일까지 '무한리필 오



천가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2만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서울사랑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는 매주 월·화요일 2만원 이상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선할인(10%), 페이백(5%), 5000원 할인쿠폰을 함께 적용하면 2만원 이상 주문 시 최대 40% 수준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 할인과 브랜드 할인쿠폰까지 더하면 할인은 더 커질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성남시, 유희부지 3곳 복합개발 본격화

도서관·수영장·청소년시설 조성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성남시 유희부지 3곳이 도서관과 수영장, 청소년시설 등을 갖춘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성남시는 위례와 판교, 삼평동 일대 장기 미활용 부지를 시민 편의시설 중심의 복합 인프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절차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은 위례스토리박스 부지와 판교동 옛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삼평중학교 인근 부지 등 3곳이다.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삼평동 부지다. 이곳은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기

반을 확보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교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과 수영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포함된다.

이번 선정으로 성남시는 총사업비 절반 수준인 29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위례 지역 개발도 순항 중이다. 위례스토리박스 부지는 공공도서관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위한 주요 행정 심의를 최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해당 부지에 청소년 활동 공간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평택시, GRDP 41.8조 경기도 경제규모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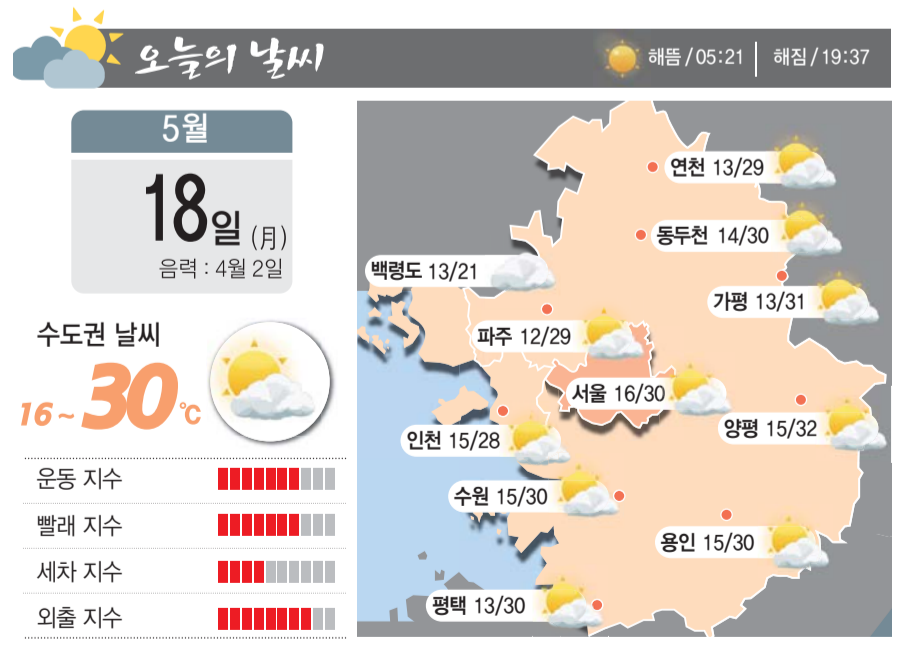
평택시가 2023년 지역내총생산에서 경기도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평택시는 2023년 명목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41조 84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9483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도내 순위도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평택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지자체는 화성시(90조 9678억원)와 성남시(59조 5691억원)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가치를 합산한 지표다. 도시의 경제 구조와 규모를 비교하는 데 활용된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日, 동남아 8국과 위성정보 공유...선박 감시 정보 공유” /사진 뉴스스
▲중동전쟁 발 공공망 불안...韓, G20서 국제공조 촉구

▲“이란, 호르무즈 통제 유지...유럽도 협상” 이란 국영 방송
▲구윤철, 런던서 한국 투자설명회...G7서 ‘중동 전쟁 공동대응’ 강조

▲대만 난터우현 동북동쪽서 규모 5.1 지진...피해·부상자 없어
▲가축전염병 청정지위 지킨다...정부, WOHAT 총회 참석